

새로운 형식...대사 없이 전하는 '오월 광주 정신'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20~22일 ACC 예술극장 극장1서 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 활용 음악·오브제·퍼포머 아우른 연출 새로운 감각적 경험으로 5·18 조명

오월 광주 정신을 대사 없이 천지창조 형식으로 풀어낸 획기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5·18을 모티브로 제작한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를 오는 20~22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오브제 연극'은 전통적인 드라마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대사 없이 오브제와 퍼포머의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공연이다.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에서는 이러한 연출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오월 광주'를 이야기하는 시도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낡고, 관념에 의해 덧칠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언어 대신 이미지와 다양한 신화, 문학 등의 레퍼런스를 층층이 쌓아 제시하며, 기존의 언어를 대체하는 '근원적 언어'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적 태도는 '오월 광주'라는 사건과 만났을 때 더욱 절실하고 유의미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시범 공연 모습. ACC 제공

한 전략으로 작동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일한 언어나 논리로 포착되거나 재현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정형화해 재현하기보다는, 이를 감각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 그 정신이 어디로나 흐르도록 만든다.

공연은 천지창조 7일을 형식적 틀로 차용한다. 창조의 1일부터 7일까지를 각각의 막으로 하고, 종말 1~7일까지를 함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를 오는 20~22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시범공연 모습.

적으로 담은 마지막 1막을 합쳐 총 8막으로 구성했다. 창세기가 제시하는 창조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며 극장은 다양한 오브제들과 호흡하는 퍼포머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진다. 이 오브제들은 오월 광주의 희생과 죽음, 파괴의 이미지를 암시한다. 창조와 종말, 생명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요소들의 일치가 존재하는 극장에서 관객들은 그 간극을 배회하며 오월 광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각하게 된다.

특히 마지막 8막은 1~7막을 통해 누적된 오브제들을 극장 밖으로 철수시키는 행위가 역순으로 진행되며 관객은 텅 빈 극장 안에 머물게 된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고정된 객석 없이 관객이 극장 공간을 직접 이동하며 관람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인 ACC 예술극장의 블랙박스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 방식으로, 관객은 이 고유한 공간성과 결합한 공연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 무용, 음악 분야의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한다. 김용빈, 임영, 정나원, 최도형 등의 퍼포머와 ACC 시즌 예술인 배우 7명이 오브제와의 움직임을 선보인다. 공연의 음악은 전통음악, 현대음악,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음악이 어우러져 8막의 연극이자 8막의 음악

극을 완성한다. 김복만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예술감독과 국악 연주자 김성근,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14명이 사물놀이, 현악, 가창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이 작품을 연출한 적극 연출가는 지난해 ACC의 '사물의 계보'를 주제로 한 '아시아 콘텐츠 공연개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사물의 계보'는 사물에 부여된 기존의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보려는 시도다. 적극 연출가는 과거 무대에 등장했던 오브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지켜보는 일종의 '사물의 계보'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 공연을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오월 광주의 예술적 확장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이며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연극·음악·미술이 긴밀히 결합된 총체적 예술이며, 오월 광주를 다시 감각하는 시도로 관객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공감각적인 시 한 편을 읽듯 공연을 관람하며 각자의 해석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삶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성료

공간건축·영화제 기획 등 한 학기 배움 발표 및 전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다)가 지난 7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 74명의 청소년이 배움의 성과를 발표하고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삶다와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 협력해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공간건축, 영화제 기획 등 8개 과정이 개설됐고, 지난 3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 씩, 삶다에서 총 9차례 진행됐다.

이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은 지난 7일 열린 결과공유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고 작품을 전시했다. 1부는 △



지난 7일 '2025 상반기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관계자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제공

단편소설창작 △지속가능한 비건 베이킹 △영화비평 △심리로 보는 나 등 4개 팀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공간건축 △영화제 기획 △포트폴리오 △미디어아트 등 4개 팀의 작품이 전시됐고, 청소년 참여자가 직접 도슨트가 돼 관객에게 설명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월에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박찬 기자

(사)빛고을예술단, '2025 양림예술축제' 13일 광파르

10월까지 매달 둘째 주 금요일 뽕킨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서

(사)빛고을예술단이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기획한 '2025 양림예술축제'가 오는 13일 광주 남구 뽕킨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개막한다.

9일 (사)빛고을예술단에 따르면 '양림 예술축제'는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후원,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예식사업부(썬웨딩 시대와 서양세마을금고 협찬으로 빛고을 예술단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빛고을예술단은 13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6시 남구 양림동 뽕킨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공연 일정은 7월11일, 8월8일, 9월12일, 10월10일 등이다.

박광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에는 재즈 가수 장소영, 트로트 가수 진이랑, 7080 통기타 가수 최영준, 지스타의 퓨전 난타 등 다양한 음악과 함께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폼바 등이 펼쳐진다. 박찬 기자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

30일까지 전남 예술인 대상 모집 선정 작품, 임대료 수익 전액 지급

전남문화재단은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 미술작가에게 창작지원을 위한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남도예술은행 in 렌트'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화를 위한 남도예술은행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작품 공모에 선정되면 작가에게

는 작품 임대료 수익 전액을 지급하며, 남도예술은행 기획행사 추진 시 참여 기회와 우선권이 부여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에 거주하거나 전남에서 출생 또는 초·중·고 등, 대학교를 졸업한 예술인으로 개인전 1회 또는 그룹전 5회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장애 예술가의 작품은 우대해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 부문은 30호 이상의 평면 작품으로 서양화, 동양화, 미디어 등 1명당 10개

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30일 오후 6시까지 '남도사이버 갤러리(namdogallery.or.kr)'에서 작가 회원가입 후 진행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전남문화재단은 해당 공모를 통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라남도청 △유스퀘어 △한전KDN △전남개발공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 시설에서 다수의 기획전전을 진행해 임대료 전액을 작가에게 지급했다. 박찬 기자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본선 진출팀 확정

국내의 실력과 뮤지션 32팀 올라 10월15~19일 광주 동구 일원서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30일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예선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본선 진출 32팀의 명단을 공개했다.

9일 동구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전 세계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라이브 공연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글로벌 음악축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버스킹 경연대회로 손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42개국에서 493개 팀(국내 323팀·국외 170팀), 총 1029명의 뮤지션이 참가 신청했다. 대륙별로는 유럽 72팀, 아시아 58팀, 남아메리카 17팀, 북아메리카 15팀, 아프리카 4팀, 중동 1팀 등이다.

본선에는 14개국 32개 팀(국내 18팀, 국외 14팀) 총 123명의 뮤지션이 진출한다.

주목할 만한 참가팀으로 국내에서는

JTBC '슈퍼밴드 2' 우승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 밴드 '크랙샷'과 한국 힙합·R&B 실력파 아티스트 '브라운티거'가 꼽히며 국외에서는 아프리카 대표 음악 마켓 'Atlantic Music Expo(아틀란틱 뮤직 엑스포)' 무대에 오른 카보베르데 싱어송라이터 '마우라 델가도'와 인도의 대표 음악 쇼케이스 'Soundscape of India(사운드스케이프 오브 인도)' 참가팀 '타피'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음악 페스티벌 기획자 및 공연 디렉터 1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각자 축제 경연에 참여한 뮤지션을 초청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본선 진출 32팀은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동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무대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박찬 기자

